

# “잉여금 730억 어디에 쓸까요?”

## 대구시, U대회 잔여재산 활용 의견수렴 나서

대구시가 730억 원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잔여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대구시는 6일 오후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잔여재산 활용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체육계와 학계, 언론계, 경제계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로부터 U대회 조직위원회 해

산으로 발생한 730억 원의 잔여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시는 U대회 정관이나 해산총회의 의결사항이 사용범위를 지나치게 제

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의 정신과 U대회의 취지 및 성격, 시·도 상생협력분위기 고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부터 자

문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U대회 조직위원회 해산 당시 임원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 사용계획을 확정된 뒤 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U대회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고 의결해 잔여재산 사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7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